▌이베로아메리카 제12권 1호 [2010. 6] : 375~406

『Historias del Kronen』을 중심으로 살펴본 스페인 젊은이들의 언어사용에 나타나는 통사적 특징에 대한 고찰*

조 혜 진**
(Cho, Hye-Jin)

〈Abstract〉

Aspectos sintácticos del lenguaje de los jóvenes españoles reflejados en la novela Historias del Kronen

Este trabajo está dedicado al lenguaje actual de los jóvenes españoles, y de manera especial a lo que en él es menos estudiado: el aspecto sintáctico. El lenguaje juvenil es una forma de hablar específica de una edad determinada, no de un grupo social. Lo realmente interesante de este lenguaje es que muchos fenómenos lingüísticos suyos salen de los sectores que los inspiran y se incorporan a la lengua común.

Nuestro interés en la novela 『Historias del Kronen』 como corpus de este trabajo se centra en su aspecto lingüístico bastante realista. Es precisamente éste el que nos interesa, y también nos servirá para detectar los rasgos específicos de la lengua española actual, sobre todo, del registro coloquial.

* 이 연구는 2009-2010 스페인 문화부 문화교류 협력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받았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E-mail: hjtinto@hanmail.net

El lenguaje juvenil como parte de la cultura oral no es algo nuevo. Los jóvenes mantienen conversaciones sobre todo para reforzar el contacto social y los enlaces entre los participantes y hablan de una forma espontánea y no planificada. Es decir, su lenguaje tiene particularidades del registro coloquial. Sin embargo, es representativo el aumento en la frecuencia de uso de determinadas construcciones y su sistematicidad.

[Key Words: Español Coloquial/ Lenguaje Juvenil/ Registro/ Alteración Sintáctica/ Función Fática]
[주제어: 스페인어 일상회화체/ 젊은이의 언어/ 사용역/ 통사적 변이/ 친교적 기능]

Ⅰ. 프롤로그

한 TV 프로그램에서 '당신은 신세대와의 세대 차이를 언제 절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중장년층 출연자들이 한결같이 '젊은이들의 말'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1].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이에 따른 새로운 문물의 등장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세대로 하여금 여러 상황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만, 이보다는 젊은이들끼리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여 생기는 세대 간의 단절감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젊은이들[2]의 말은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자신들만의 소속감, 연대감

1) MBC '세바퀴'라는 프로그램으로, '줄여 입는 교복', '자유로운 애정 표현', '각종 전자제품 이용', '말'이 4개의 선택지로 주어졌었다.
2) 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회학적 연구의 대부분이 '젊은이'를 15세에서 24세로 규정짓고 있다(Rodríguez 1989, 21). 본 연구에서는 '젊은이'의 생물학적・사

을 표출하는 한 방식이며 특정한 양상을 보인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언어는 자신들만의 의사소통을 위해 생성되는 구어체 사용역이고, 특히 오늘날 영상과 음향을 자유롭게 도구화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TV라는 매체를 타고 학생과 도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생성, 전파된다. 그리고 그 표현들 중 일부가 지속적으로 세대 및 계층을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된 결과 공통규범어의 일부로 뿌리를 내리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은 스페인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통적으로 "언제나 대중적(popular)이었던 스페인어"(Sánchez Lobato 1992, 67)의 특징상 스페인 젊은이들의 언어는 특히 사회 하층민이나 범죄자들의 언어에서 큰 영향을 받았으며, 재미나 독창성 추구라는 목적 외에 지성적이거나 지나치게 다듬어진 표현과 무관한 계층과의 동료의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차용 의도를 찾을 수 있다(Rodríguez González 1989, 14). 그리고 이러한 특정 계층의 언어가 종종 기존의 영역을 넘어 사회일반의 공통언어로 전파되기도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표현들을 생성해내고 빠르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그 사회와 문화를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계층이 바로 젊은이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사회 일각의 은어나 전문어가 자신들의 영역을 넘어 전 국민의 일상회화에까지 등장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로서, 그 중에서도 젊은이들의 언어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즉 능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젊은이들의 언어는 구어체 스페인어의 특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되며, 바로 이 같은 사실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특히 발음이나 형태, 어휘

회학적 연령에 대한 세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면에 집중되어 있다 (Casado Velarde 1989; Herrero 1989; Santos Gargallo 2002). 그 이유는 통사구조 같은 언어 내적인 면 보다는 외적인 면이 훨씬 접근하기 쉽고 이해가 수월하기 때문이며, 또한 바로 이 측면들이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이고 전달하는 메시지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말을 개별적인 요소로 간주, 규범어와 분리하여 비교한 다음 차이를 보이는 어휘 목록을 도출하거나, 통사적인 측면을 표면적이거나 대수롭지 않은 특성의 총합으로 간주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차별적인 요소들만을 수집하는 것은 언어체계와 각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화자의 의도와 화맥에 대한 이해가 배제된다는 맹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나 문장의 구조나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 및 기능, 배열 등을 기준으로 스페인어 구어체의 한 변이형이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언어적 특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명사구, 동사구, 어순 상의 특징을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젊은이들의 언어와 규범어

사회언어학에서 '연령'은 언어변이를 야기하는 주요한 사회적 변수로 간주되는데, 여러 다양한 연령층 중에서도 단연 '젊은이'들이 새로운 변이형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그룹으로 인식된다. 이에 대해 Zimmermann (1996, 484)은 자기 집단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기호를 타인들이 모방할 때 이를 거부하는 특성이 있는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낼 의무를 느끼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새로운 형태의 말을 지속적으로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정치적 발언권이나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의 주류 세력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소외 계층'으로 볼 수 있

으며, 이들의 언어 사용 양상 또한 끊임없이 변화할뿐더러 매우 덧없이 사라지기 쉽다는 점에서 규범어에서 '소외된 언어'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규범문법에서는 이들의 언어를 정당한 연구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젊은이들의 말은 당연히 규범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창조적인 형태로 변형하는 동시에 정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젊은이들의 말과 그들의 문화가 나타내는 반反 규범적 성격[3]은 우리 사회의 말이 규범화된 존재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들이 규범어를 변형하여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코드로 사용하는 것은 규범어가 특정 세대(성인), 특정 사회계층(중산층, 식자층)의 변이형이자 국가 기관에 의해 지원되며, 그 과정에서 올바르지 못한 사용은 제재를 받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은 이 규범이 어른들에 의해 생성되기에 이를 어른들의 세계와 동일시한다. 그러므로 기성세대와 차별되는 자신들만의 독자성과 소속감, 동지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학교 문법, 식자층의 말, 기성세대의 문화에 반反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듯 젊은이들의 규범어 변형은 자신들이 속해있는 사회의 부분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규범을 어김으로써 이 사회·문화와는 별개의 존재로 자신들을 인식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들은 기성세대의 문화와 순순히 타협하지 않는 자신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표출하며, 그들의 말이 빠르게 변화한다는 점 또한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한편, 젊은이들의 언어는 지역, 성별, 계층, 경제적 수준, 맥락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언어가 근본적으로 '구어'라는 사실에서 기인함다고 하겠다. 즉,

---

3) 이와 관련하여 Halliday(1978, 164)는 반문화적 성격의 사회구성원들이 그에 합당한 표현 수단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 '반反 언어(antilenguaje)'를 통해 자신들만의 가치를 표출하고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다고 밝힌바 있다.

젊은이들의 언어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특정 집단의 도시말 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젊은이들 집단의 변이형들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명칭인 셈이다. 일견 명확하게 구분되어 보이는 '젊은이들의 언어'라는 표현에는 공통분모로 작용하는 '나이'라는 기준 하에 사회, 문화, 경제, 지리적인 요인들로 인해 비롯된 수많은 변이형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부분의 언어 표현은 미리 설정되거나 특정한 목적이 없는 비형식적이고 즉흥적인 대화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친교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정치·문화적으로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어른들의 특징인 규범어를 사용하는 대신 더 비형식적이고 일상적인 회화체(registro coloquial), 즉 "registro formal de los niveles medio y popular de la lengua común, caracterizado por una actitud espontánea (Seco 1973, 361)"를 선택하는 것이다. 즉 공통규범어의 다양한 층위 중에서 대중어의 비형식적인 사용역인 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젊은이들의 말은 친구나 연인, 동료 같은 친밀한 화자들 간의 비형식적(informal)인 성격의 대화에 적합한 언어이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거나 강조하려는 목적의 친교적 기능(función fática)을 한다. 또한 학업이나 일, 옷, 음악, 인간관계 등의 매우 일상적인 주제(tema)를 직접 대면하여 즉흥적인 구어(oral)로 풀어나가는 것이다(Vigara Tauste 1992; Briz 1996). 때로는 글의 형태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 또한 일상회화체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젊은이들의 언어는 일상회화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용역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통사적 특징 또한 바로 이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언어 사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일종의 사회 방

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말의 일부가 비형식적 사용역을 넘어 훗날 공통규범어에 편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있다. 더군다나 과거와는 달리 각종 방송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사회 저변으로의 확대가 점점 더 쉽고 빨라지는 형편이다[4]. 그리고 이는 '언어는 부단히 변화한다'라는 진리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양상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Ⅲ. 『Historias del Kronen』에 나타난 스페인 젊은이들의 언어 사용과 스페인 젊은이들의 언어사용에 나타난 통사적 특징

본 연구에서 Corpus로 선택한 José Ángel Mañas의 『Historias del Kronen』은 1994년 나달상(Premio Nadal) 결선 진출작이었으며, 다음해인 1995년 몬초 아르멘다리스(Montxo Armendáriz) 감독에 의해 영화화될 정도로 그 사실성과 주제 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마드리드 젊은이들의 일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으로 유명한 이 작품은 당시 24세였던 작가가 동시대, 동세대, 동지역의 언어를 구사하는 계층의 한 구성원으로서, 대학생이었던 자신의 신분을 바탕으로 1인칭 화법과 대화 위주의 글을 예술적 창작이라는 틀 내에서 매우 사실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당시 마드리드 젊은이들의 말을 현실적으로 재현해 극적인 현실감을 더했다는 평을 들었다[5].

이 소설에서는 프랑스계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한 중상위 계층의 주인공 대학생 외에도 사무원, 바텐더, 가수, 마약중독자와 운반책 등의 다양

4) 2004년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 '지름신'과 '악플'과 같은 어휘가 수록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는 셈이다.

5) www.joseangelmanas.com/kronen.html 참고

한 계층의 젊은이들이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변이형으로 대화를 나눈다. 즉 주인공 화자는 상대방이 대학생이든 마약상이든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변이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며, 통사적인 측면에서는 어휘적인 부분에서만큼 그 변이형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바로 이 같은 점에서 특정 언어현상의 영역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한층 덜어지는 셈이다. 물론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92년에는 인터넷 통신어와 SMS[6]가 젊은이들의 언어 사용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에 대해 예측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의 부족함이 남는다[7].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의 언어사용에 대한 연구는 어휘와 형태적인 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왔으나 그들의 언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통사적인 특징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은 구어체적 성격의 언어변이형 연구에 있어 화맥을 고려하지 않은 개별적인 문장을 기초로 한 분석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사료된다. 발견되는 특성 모두가 대화의 여러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발화 전략이기 때문이며, 구체적인 상황과 화자의 발화 의도에 대한 이해 없이 그 기능을 적절하게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현실성이 뛰어난 『Historias del Kronen』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고, 이 작품에 반영된 젊은이들의 언어사용 양상의 통사적 측면을 상황적 요소와 더불어 고찰하고자 한다.

---

6) Short Message Service의 약자

7) 이와 관련하여 다음 연구를 참고할 것: Silvia, B.(2006), "La jerga juvenil de los SMS :-)", *Cuadernos del Lazarillo*, nº 31, Salamanca; Spagna, pp.68-76; Fernández Pinto, J.(2001), "Apuntes sobre SMS y WAP", *Cuadernos Cervantes*, nº 31, Madrid, pp.76-85; Guerrero, J.(2001), *QRS ABLAR? Pqño lbro d msj txt,* Barcelona; Ediciones B; Serra, M. "Los otros mensajes de móvil", *La Vanguardia Digital,* Barcelona, 16/05/2006 (www.lavanguardia.es)

젊은이들의 언어 사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통사적 특징은 그들의 언어가 사회방언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하며 또한 비형식적인 대화 상황에 적절한 일상회화체이자 은어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바로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이들의 언어를 연구함에 있어 화용론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와 문장 단위를 기준으로 한 젊은이들의 언어사용상의 특징을 일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통사적 특징 중 어떤 것은 의미의 변화나 전위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또한 형태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그들의 언어 사용역이 기본적으로 일상회화체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선호하는 통사적 구조를 훨씬 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1. 명사, 명사구의 사용

젊은이들의 명사와 명사구 사용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표현력 강화를 위해 비속어를 자주 포함시키는 것이다. 일종의 허사인 이들은 생략되더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별한 통사적 기능이 없는 이 비속어들은 표현력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발화되는 것이다. 이들은 화자의 불쾌감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표출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사회 계층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하는데, 특히 다른 연령층의 일상회화체에 등장하는 비속어와 비교해 볼 때 그 차이를 깨달을 수 있다. 다른 연령층은 화자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속어를 사용하는 반면 젊은이들은 의식적으로 규범어를 파괴하고 자신들만의 차별적인 언어를 구사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영에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상황에서 비속어가 난무하는 것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비속어가 독립적으로 어휘화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고찰은 제외

하도록 한다.

먼저,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비속어는 구문의 핵심어 역할을 하는 듯 보이나 통사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감정만 표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1) - No sé para qué hostias les pagan a estos profesores. (p.88)
- ...la dichosa antorcha, que ya ni se sabe por dónde coño pasa, ocupa la pantalla. (p.177)
- ¿Qué coño le has contado a mi hermana para que se esté descojonando? (p.209)

또한 비속어가 직접 수식어의 역할을 하거나 전치사와 함께 쓰여 간접적으로 수식어의 기능을 수행하여 구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표현력 강화에 그 사용 목적이 있다.

(2) - ¡Que vamos a pasar por un puto seven ileven a papear algo! (p.23)
- Ves cómo eres un puto marica. (p.178)
- Qué puta mala suerte. (p.111)
- Está el jodido culebrón sudaca. (p.150)

(3) - Tiene un cuerpo bonito, pero es tonta del culo. (p.15)
- Coge el billete con cara de mala hostia... (p.110)
- ...pero yo estoy como un cerdo currando, intentando vender seguros de mierda... (p.201)
- Eres un tío de puta madre. (p.217)

비속어는 일상회화체에서 널리 사용되긴 하지만 젊은이들이 이를 현저히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의 말은 일상회화체의 통사구조에서 출발하지만 의식적으로 저속한 표현을 선택하며, 이를 통해 규범어를 비트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더 공격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한편, 일상회화체, 특히 젊은이들의 말에서는 자질이나 수량을 부각시키기 위해 도치를 통한 일반적인 통사구조의 변형이 자주 발생한다. 규범어에서는 주로 형용사들이 수식어로 기능하지만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도치된 구문에서는 수식어가 명사인 피수식어의 역할을 하게 되며, 명사인 피수식어는 전치사구의 형태로 수식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역할의 전위가 발생한다(Alarcos 1972, 88-89). 따라서 도치가 이루어진 구문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초점(foco)의 위치에 따른 화용론적 의미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4) - Una puta mierda de equipo. Del uno al once... (p.11)
- Un tío, guay, nada que ver con el pesado de Raúl. (p.11)
- ¿Habéis visto al mariconazo de Míchel cómo ha fallado el penalti? (p.12)
- Qué coñazo de tío, el Chus éste. (p.50)
- ...y sólo tenía noticias suyas a través del gilipollas de su hermano... (p.72)
- ...y el hijoputa de su hermano me colgó el teléfono. (p.153)
- Julián me indica un montón de toallas... (p.226)
- Hace cantidad de tiempo que no venimos al Kronen... (p.201)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전치사구의 명사와 피수식어 간에 성수일치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5) - La puta de Amalia no ha llamado. (p.42)
- ¿Con los pesados de guille, David y éstos? (p.59)
- La cabrona de mi hermana siempre consigue dejarme el depósito a cero. (p.68)

한편, 명사구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치사 DE의 탈락은 일상회화체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Vigara Tauste 1992, 202), 발화의 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구문내의 관계를 단순화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전치사구가 아닌 직접적인 수식어의 형태로 변형시켜버리는 것이다. 그 결과 명사가 마치 형용사처럼 기능하게 된다. 이 같은 형태가 본 소설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으나 마치 합성어처럼 인식되는 HIJOPUTA의 경우 HIJO DE PUTA와 빈도와 의미면에서 동일하게 사용됨을 알 수 있고, '태도'를 의미하는 PLAN은 모든 경우 전치사를 생략하고 쓰였다. 이 경우 모두 일상회화체에서 이미 매우 안정적인 사용양상을 보이고 있다.

(6) - Qué malo es el hijoputa. (p.12)
- ...soy yo quien le da un puñetazo y el hijoputa del gordo, carapolla creo que se llamaba... (p.19)
- No te pongas ahora en plan anarca y pásame la botella de Huaitlabel. (p.129)
- Yo comencé a acelerar [...] en plan coña... (p.136)
- Lo que me jode un poco es que vais a venir todos en plan parejitas. (p.209)

기타 전치사, 특히 EN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도 탈락과 오용의 경우가 발견되는데, EN 탈락의 경우는 DE, A와 함께 가장 빈번한 사례로 보고되고 있으며(Gutiérrez Araus 1985, 21), 이 역시도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일상회화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 Me di cuenta en cuanto quise besarle... (p.232)
- Sí, pero creo que sólo se queda julio, ¿no, Carlos? (p.163)

마지막으로, 표현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한 형태의 변화로 인해 품사까지 변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먼저, 명사나 명사구가 형용사로 기능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8) - Estaba pedo. (p.234)
- El billar es una mierda y está desnivelado... (p.22)
- La muy puta ha llamado. (p.123)
- Una de las cintas porno que tiene el jefe por ahí. (p.138)
- Hace cantidad de tiempo que no venimos al Kronen, ¿eh, Celia? (p.201)
- Julián me indica un montón de toallas... (p.226)

둘째로, 형용사가 명사처럼 사용된다.

(9) - Va a organizar una buena en su casa. (p.174)
- No seas tan cobarde! Eres un débil. (p.194)
- Así, además no le hacéis un feo a Fierro, que es su cumpleaños.

(p.206)

- Nos hubiera dicho que éramos unos blandos... (p.230)

셋째로, 형용사나 명사가 부사처럼 기능하는 경우도 매우 잦다.

(10) - A mí me apetecería un montón ir a Amsterdam. (p.58)
- Me encanta conducir tostado. (p.76)
- Me río satisfecho. (p.78)
- ...a ver si terminas rápido que tenemos que irnos. (p.102)
- Espero que no conduzcas borracho. (p.121)
- Pues sí que anda jodidillo tu carro. (p.135)
- Juegas muy sucio y lo sabes... (p.149)
- ...se lo estaba pasando pipa metiéndole algodones por la nariz... (p.168)
- ¿Por qué no puedes ir normalito y bien por una vez? (p.183)
- El Álex las va a pasar putas pero estas horas las va a cobrar doble... (p.213)

2. 동사, 동사구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동사나 동사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규범어와의 차이에 있다. 이는 젊은이들이 기존의 동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통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규범어로부터 일정 동사를 취하기는 하나 자신들의 세계와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새로운 의미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때로는 규범어에는 없는 은어를 사용하기도 한다[8].

먼저, 규범어에서는 자동사지만 젊은이들은 이를 타동사나 연계동사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IR DE' 구문에서 IR 동사는 기존의 진행이나 움직임 대신 '행동하다, 처신하다'의 의미로 쓰여(León 1980, 87), 전치사구가 주어의 특징이나 행동방식을 나타낸다. 형용사와도 함께 쓰이지만 본 소설에서는 명사나 대명사와 사용되는 경우만이 발견된다.

(11) - Ésos iban puestos, troncos, iban de algo. (p.102)
- Pues el Santi, que estaba muy puesto, iba de tripi, y le dio por torear coches. (p.113).
- Bueno, troncos. Vamos de marcha, ¿no? (p.15)
- Pero si no les he dicho nada, ¿de qué vas? (p.14)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사로 사용되는 CURRAR는 직접목적어의 선택적 사용 또한 자유로우며, PASAR는 명시된 직접목적어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마약을 팔다'라는 특정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12) - Pues yo me curro un ritmo guapo y luego le meto la melodía que me va saliendo… Cuando no tengo muchas ganas de currarme una letra, le digo al cantante que se la curre él, sabes… (p.51-52)
- Mientras los demás curramos para ahorrar unas pelillas para pagarnos el verano… (p.177)
- Nos pasa la coca, pero no es uno de los nuestros… (p.236)

---

8) - …llevo fumando desde que me desperté y no quiero más o voy a acabar potando. (p.95)
- Me los he comido todos, pero todos, no te creas, hasta que he rabado. (p.212)
POTAR, RABAR 모두 '토하다'는 의미로 쓰이며, 아직 사전에는 수록되지 않은 어휘들이다.

- ¿No se te ocurre nadie que pueda pasarnos? (p.123)
- Está sólo durmiendo la borrachera, joder. (p.223)

위와는 반대로, 재귀대명사의 잦은 사용이나 동사의 의미 변화로 인해 타동사를 자동사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떠나다, 가다'를 의미하는 ABRIRSE의 경우는 의미 변화로 인한 재귀대명사의 사용이 의무적이며, '~에 전념하다, 몰두하다'를 뜻하는 'DARLE A' 구문에서 간접목적어 LE의 성과 수는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다. '마약을 구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PILLAR는 직접목적어를 생략한 채 쓰이기도 하며, '쓸모없다, 어울리지 않다'는 뜻의 PINTAR는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자동사로 쓰인다. 또한 대표적 타동사인 COGER도 다음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통사·의미상으로 특정한 기능 없이 마치 자동사처럼 사용된다.

(13) - Fuera, Fierro y Raúl, que han quedado con Yoni en Graf, se abren en un Doscientoscinco blanco. (p.14)
- Dale un trago al güisqui, Roberto, y vamos a darle un poco más a la coca... (p.219)
- Dile que me pille a mí también, ¿vale? [...] Si queréis, os acompaño a pillar... (p.29)
- Incluso el camarero del Kronen, que no pintaba nada. (p.236)
- Pues ahora coges, te abrochas los pantalones y te largas de aquí... (p.172)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젊은이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재귀대명사는 구문을 자동사화하는 동시에 의미 변화도 야기한다. 이 자동사 구문에서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된 동사들은 대부분 외면화되지 않은 주어의 심리 상태를 부각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주어임을 강조한다(Cano 1981, 277-278). 이 과정에서 주어가 연거푸 강조되는 것은 분명하며, 이 또한 젊은이들의 언어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14) - Pero no os apalanquéis, troncos, que hay que pillar todavía mucha marcha... (p.112)
- Ayer te enrollaste con Rocío, me han contado. (p.227)
- El tiempo pasa rápido cuando se está colocado. (p.117)
- ...me pasas los papeles cuando pagues para que el viejo no se cosque. (p.101)

한편, 이 동사들은 과거분사의 형태로 ESTAR와 함께 쓰여 완료된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그 완료적 의미로 인해 재귀대명사의 사용은 감소한다.

(15) - El tiempo pasa rápido cuando se está colocado. (p.117)
- El Raro siempre ha estado muy colgado. (p.55)
- Yo estoy demasiado quemado. (p.190)
- ...que estoy muy jodido. (p.213)
- ¿Qué os pasa a vosotros, que estáis todos descojonados? (p.214)
- El Fierro está tan amariconado como siempre. (p.201)
- Estoy algo desfasado. (p.123)
- Manolo está puesto, ¿verdad? (p.201)

한편, 직접목적어를 전치사구로 대체하는 구문도 젊은이들의 언어에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통 새로운 의미로 재생된 동사의 경우, 예를 들어 '때리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DAR DE'와 '무시하다, 관심두지 않다'는 뜻의 'PASAR DE'는 그 새 의미로 인해 직접목적어로 기능하는 전치사구를 수반하게 된다. 전형적인 타동사인 'HACERSE CON' 또한 '~을 얻다, 차지하다'를 뜻하며, 여전히 타동사 구문을 이루지만 전치사구가 직접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본 작품에서는 CON이 탈락된 형태가 발견된다.

(16) - ...y me pregunta por el tío que me dio de hostias el verano pasado. (p.18)
- ...y luego les da de hostias y les pone sal en las heridas... (p.92)
- Pero paso de discutir con él. (p.67)
- Que no, que paso mucho de besarte en la boca. (p.220)
- Roberto es mucho mejor que yo y se hace casi todas las pantallas... (p.120)

재귀동사 또한 전치사구가 목적어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경우, '~를 얕보고 지나치게 굴다'의 의미로 사용되며, 이때 전치사구는 직접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17) - No deberías pasarte tanto con Fierro y con Raúl. (p.14)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타동사에 재귀대명사를 첨가하여 강조나 표현력 증대를 위한 간접목적어의 의미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다. 이

를 통해 화자가 실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지나 참여도를 명시하거나 강조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Martín Zorraquino 1979, 321).

(18) - ¡Así te gastas el dinero de mamá y papá, en copas! (p.29)
- Pero yo ya me gano la vida y no vivo de mis viejos... (p.44)
- Podemos acercarnos a ver lo que echan en el cine y luego nos tomamos una copa. (p.70)
- Pues me pensaré lo de la acampada, aunque no creo que vaya. (p.89)
- Y tú, ¿por qué no te buscas una novia? (p.95)
- Manolo se termina su copa de un trago... (p.110)
- Tú te traerás la tuya, supongo... (p.210)
- ¿Ya te has terminado la botella? (p.222)
- Vas a pillarte las mismas mierdas aquí que en cualquier otro lado. (p.229)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젊은이들의 동사나 동사구 형성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기본적으로 의미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외에도 법이나 시제를 무시한 동사 사용도 빈번하여, 현재시제로 다른 시제나 법을 대신하거나(Y menos mal que no estaban mis padres. Si llegan a estar, eso hubiera sido la leche. [p.74] / Si lo llego a saber, hubiera traído mi coche. [p.115] / Así, además no le hacéis un feo a Fierro, que es su cumpleaños. [p.206]) 가능법시제를 불완료과거시제로 대체하는 구어체적 특징도 종종 발견된다 (Podías haber esperado a que pasáramos un contenedor de vidrios, ¿no? [p.139] / ¿No podías haber ido

otro día? [p.228]).

3. 구문적 특징

젊은이들의 말에선 문장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구문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일상회화체의 전형적인 특징으로서, 먼저 그들은 전형적인 감탄사나 비속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 상태나 주관적 판단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지시나 의견 표현 혹은 친교적 기능(función fática)을 목적으로 하며, 이 모든 경우 젊은이들은 저속한 표현이나 욕설을 선호한다(¡Qué putada! [p.120] / ¡Qué cabronazo! [p.18])

비속어 사용을 통해 극단적이며 직접적인 감정 표출은 물론 규범어 파괴와 이에 대한 반항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 감정을 야기하는 대상을 비속어와 함께 지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19) - Bueno, bueno, joder con el machito. (p.227)
- Joder con el Roberto. (p.196)

또한 명사구나 부사구, 전치사구 등 동사가 빠진 구문도 매우 빈번하게 사용한다. 물론 의사소통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하려는 정보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또한 이를 tema의 위치, 즉 문두로 전위하는 유표적 어순을 보이기도 한다.

(20) - No, Elena la de Santander, no, tonto, ésa no. Otra que vive en la Moraleja. (p.39)
- Y el disco, ¿para cuándo? (p.51)
- ¿Cómo tan pronto por aquí? (p.88)

- Qué hostias descansar. (p.189)

마지막으로, 일상회화체에서는 화자들 간의 지속적인 관계가 반영된 구문들이 빈번히 사용되는데, 이를 통하여 표현력을 높이고 지시적 기능을 강조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명령문 대신 젊은이들은 이를 강조하기 위한 'NADA DE + 동사원형' 이나 'NI + 동사원형' 구문, 혹은 NO 대신 NI 의 강조된 사용을 선호하기도 하는데, 특히 명령의 의미를 완화하는 공손어 없이 명령문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양상이 매우 두드러진다.

(21) - Tú, atontado, déjame salir, que voy a mear. (p.12)
- Anda, pon unos pinchitos, algo para papear, Manolo. (p.88)
- Pero nada de entrar a tías, ¿eh? (p.115)
- A los yonquis que te ofrezcan costo, ni mirarles. (p.140)
- De ése no quiero volver a hablar, así que ni me lo menciones. (p.152)
- Ni se te ocurra volver a sujetarme el brazo, ¿eh, Pedro? (p.223)

이렇게 직접적인 지시기능의 구문을 사용하는 것은 일상회화체에서 명령형의 단독 사용을 회피하는 양상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특히 본 소설에서는 낯모르는 연장자나 연상의 여성을 제외한 동일한 그룹 내의 동료들이나 비슷한 연령의 젊은이들 간에 por favor, haz el favor de 등의 공손어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4. 정보의 주관적 배치: 어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순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민감하고 섬세한 표현방법 중 하나(Vigara Tauste 1992, 72)”이다. 표현력을 높이기 위한 문장구조의 재배치 혹은 전위는 문법적으로 올바르다고 판단되는 일반 구문의 단순한 변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며, 그 허용 한계는 화자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Gili Gaya 1961, 94).

일반적으로 스페인어는 ‘주부 + 술부(동사 + 직접목적어 + 간접목적어 + 상황보어)’의 어순으로 어휘가 배치되며, 담화분석의 관점에서는 ‘주제(tema) + 평언(rema)’의 순으로 정보가 배열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어순이 바뀌면 표현력 강화와 주관적이고 강조적인 문장 생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일상회화의 특징인 즉흥성과 화자들 간에 공유된 정보는 자유로운 통사구조를 야기하고, 이 변화는 사고의 진행 순서에 맞춰 단어를 종종 전진배치하기 때문이다(Vigara Tauste 1992, 75).

사실 젊은이들이 대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구성은 전형적인 일상회화체의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화자는 자신이 말하는 바가 적절히 이해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를 설득하고 그의 제안을 수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게끔 노력하기 때문에(Narbona 1997, 172)” 그들 또한 어순을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본 작품의 등장인물들 또한 주관적인 어순을 극히 선호하여, 대부분의 대화가 이러한 강조적인 어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장황한 설명보다는 간결하면서도 확실한 의사표현을 선호하는 현실의 반영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화의 주제를 관심의 중심에 배치하려는 화자의 의도는 주관적인 어순을 낳는데, 예를 들어 특정 어휘를 문두(文頭)에 전치하기도 한다. 본 소설의 주인공인 젊은이들은 대부분의 대화

에서 문장 내의 특정 요소를 문두에 배치한 구문을 선호하여,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의 어순이 이를 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즉흥적일뿐더러 상대에게 재빨리 대응해야한다는 화용론적 필요성이 이와 같은 어순을 선호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장 구성 요소의 유표적 어순, 즉 특정 요소가 일반적인 어순을 따르지 않고 문장 왼쪽에 전치되는 경우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극적으로 실행되어 왔다. 새로운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동시에 부각시키는 통사적 장치로 손꼽히는 전치법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보면, 하나는 tematización(topicalización)이고 다른 하나는 rematización(focalización)이다[9] (Hernanz & Brucart 1987; Fernández Soriano 1993; Zubizarreta 1998, 1999; Gutiérrez Ordóñez 1997, etc.)이다. 그러나 양자에 속하지 않는 구문들도 존재하므로 아직까지도 모든 문법적, 담화적 특성을 아우르는 정의 및 구분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자의 관심이 향하는 내용을 문두에 배치하는 tematización과 rematización 모두 표현력을 증강하는 효과적인 통사적 장치이다. 이 같은 유표적 어순에 대해 Vigara Tauste (1992, 73-76)는 tema의 후치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강조적·유표적이고 표현력이 강한 발화와 직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유표적 어순은 모두 일상회화체의 특징인 '정보

9) 명칭이나 정의, 구분과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본 연구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명칭과 관련하여, Hernanz & Brucart (1987, 81-103)는 tematización-rematización으로, Contreras (1978, cap.9)는 topicalización-dislocación으로 구분한 바 있다. 반면, 영어권에서는 topicalization - left dislocation으로 구분하는데, Hernanz & Brucart(1987, 82)에 의하면 전자는 스페인어에서의 rematización, 후자는 tematización에 해당한다. Tematización은 주어-동사의 위치가 일반 어순과 동일하고, 반드시 전치된 목적어에 해당하는 접어대명사가 등장하며, 한 단어 이상이 전치가능하다. 또한 rematización은 주어-동사의 위치가 도치되며, 접어대명사가 반복 등장하지 않고, 한 단어 이상 전치할 수 없다(Hernanz & Brucart 1987).

의 주관적 배치'라는 큰 틀 안에서의 이동의 결과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장치들의 정의와 구분에 대하여 크게 주목하지 않도록 한다.

(22) - A ti, lo que pasa es que te gustan los tíos, ¿no es verdad? (p.220)
- Aquella película, Jenriretratodeunasesino, la veía cada dos días. (p.232)
- Yo el teléfono te lo puedo dar, pero lo que pasa es que... (p.187)
- A mí la mierda no me la busca nadie... (p.58)
- Al Carlos lo que le mola ahora es Dedé. (p.21)
- ...y mi dinero no se lo pido a papá como el señor Carlos... (p.205)
- Ahora todas las pelas que ganas las tienes netas para vicio. (p.70)
- Muchas confianzas te estás tomando tú últimamente. (p.176)
- Fierro, quita esa música de mierda. ¿Dedé no tienes, no? (p.218)

(23) - A esta ronda nos ha invitado la camarera... (p.19)
- A Amsterdam me quiero ir yo este verano... (p.174)
- ...la culpable de todas las movidas del Chus soy yo. (p.72)
- Ah, y a las nueve y media hemos quedado para cenar, no te olvides... (p.39)
- Yo, de eso, no sé. (p.178)
- Voy a conducir yo, que de ti no me fío... (p.158)
- Y el disco, ¿para cuándo? (p.51)
- Con esas pintas que lleva parece un puto inglés. (p.204)
- Contigo no se puede ir a ningún lado. (p.193)
- ...te juro que de ésta te vas a acordar. (p.172)

- Muy mal lo veo. (p.173)

본 소설에서는 위와 같이 문장 내의 특정 범주가 문두로 전위된 경우가 지나치게 많다. (22)는 직·간접목적어가 문두로 이동하며 접어대명사를 중복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이며, (23)은 전치사구, 부사, 기타 요소가 전위된 표현들의 일부이다. 이렇게 다수의 예가 발견되는 이유는 tematización이든 rematización이든 일상회화체에서 매우 선호하는 어순이며, 앞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 청자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하므로 매우 편안한 어순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가장 단적인 예는 대답에서 나타나는데, 화자는 상대방의 질문에 재빨리 대답하고 싶어 하는 동시에 이후에 전개될 내용에서 결정적인 어휘를 먼저 제공하고자 한다. 발화의 특정 요소를 강조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그 어떤 요소도 문두 이동을 거쳐 부각될 수 있으나 주어의 특성을 가리키거나 직·간접 목적어일 경우 더욱 빈번하다.

한편,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도 매우 많은데, Vigara Tauste (1992, 82-86)는 이를 '나'를 비롯한 인간을 강조하는 '인격화' 목적의 통사적 전위로 이해하고 있다. 자신의 말에서 끊임없이 '너'에 대비되는 '나'를 부각시키고, '나'와 다른 '너'를 강조하는 것이다.

(24) - Yo lo que quiero ahora es salir de aquí, de Madrid. (p.63)
- Yo la verdad es que comería algo... (p.60)
- Tú lo que pasa es que eres un aguafiestas. (p.22)
- La gente es que se pone nerviosa por nada. (p.69)
- Patrick seguro que ni se fijaba en ella. (p.92)

수많은 예문을 살펴본 결과, 사람을 강조하는 표현의 문두(文頭) 이동이 가장 빈번함을 알 수 있었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때때로 그 통사적 형태에 어긋나는 파격구문을 생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소설에서는 이 같은 예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일상회화체를 실감나게 재현했으나 작가의 손을 거친 문학작품이라는 이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지시형용사가 명사에 후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전통적으로, 관사가 명사에 전치하는 경우에만 지시사가 명사에 후치하며, 이 때는 매우 뚜렷한 비하적 의미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통념이었다. 그러나 이를 과거의 인식이라고 설명한 Vigara Tauste(1992, 96-97)는 지시사에 의해 한정된 요소를 부각시키고 상대방의 주의를 먼저 끌기 위함이라고 해석하였고, 따라서 지시사의 후치는 그 지시적 의미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다. 본 소설을 살펴본 결과 젊은이들은 지시사 후치를 매우 빈번히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5) - Qué año aquél, siempre estábamos juntos. (p.53)
- …¿cuáles son las historias ésas del Raro…? (p.55)
- Que todavía no he podido enganchar al tipo éste… (p.62)
- Al sitio ése donde fuimos tú y yo y Miguel una vez, ¿te acuerdas? (p.92)

마지막으로, 감탄문에서의 어순 변이도 매우 일반적인 일상회화체의 특징이다. 아래에서 보다시피 일반적인 감탄문의 구성요소들이 전위된 구문에서도 핵심요소로 자리함을 알 수 있다.

(26) - Qué poco humor que tienes, papá. (p.208)
- Menuda sorpresa que me tenía preparada. (p.212)
- Una putada que no esté tu novia... (p.217)
- Joder, qué subidón que me está pegando. (p.218)

결론적으로 젊은이들의 말에서 정보의 배열, 즉 어순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최대한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상대화자의 정보처리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하여 화용론적 요소가 우선하는 주관적이고 강조적인 어순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Ⅳ. 결론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어휘나 말의 형태가 타 세대에 비해 혁신적, 차별적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출발했다. 또한 젊은이들의 언어는 일상회화체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스페인어의 그것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스페인 젊은이들의 언어'라는 한계가 모호한 대상을 분석하기 위해 『Historias del Kronen』을 매개로 선택하였고, 그 이유는 현대 스페인 젊은이들의 일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검증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물론 작가 개인의 관점과 문체를 무시할 수 없는 픽션이라는 점과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기와 2010년 현재와는 상황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본 연구의 한계이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젊은이들의 언어적 특징은 일상회화체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상대와의 특정한 대화 상황에서 발화된다. 따라서 이들의 언어는 사용역의 하나이자 사회 방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들은 동질의 집단이 아니며 그들의 말 또한 사회, 지리, 시기적 요소가 '연령'이라는 요소와 교차된 여러 변이형들로 이루어져있다. 물론 이 변이형은 과거 기성세대가 통제하던 여러 대중매체에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문어에서도 점점 더 사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사회방언의 측면에서 볼 때, 젊은이들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어휘의 뜻과 형태의 변형이 가장 두드러지며, 이것이 통사적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한편, 일상회화체라는 사용역의 측면에서 젊은이들의 말은 통사적으로 다른 연령층의 그것과 괄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특정한 표현의 사용 빈도는 분명히 차별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언어 또한 더욱 복합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어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으로, 그 내적 구성원인 젊은이들의 언어활동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일시적이고 표면적이나마 자신들의 차별적인 존재를 의도적으로 표면화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는 것이다(Lázaro Carreter 1980, 245).

본문에서 보았다시피 현대 스페인 젊은이들의 언어는 그 구조나 수단, 조직 면에서 공통규범어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있지 않다. 통사적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젊은이들의 언어적 특성은 첫째, 비속어를 규범어에 잇달아 삽입한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통사구조상의 변이까지 발생시킨다. 두 번째 특징은 규범어와는 다른 동사의 사용으로 인한 통사구조의 변형이다. 이 두 양상은 특정 사회계층 내부, 즉 동일한 집단 내 젊은이들이 독자적인 언어를 구사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특성은 공통규범어로의 점진적인 편입과 비례하여 차별적 성격을 상실하게 된다. 젊은이들의 언어사용이 관심을 끄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사실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Rodríguez González(1987, 69)는 "젊은이들의 부족한 표현력과 풍부하지 못한 언어구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은 언

어가 생성되는 시발점으로 자리잡았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일상회화를 역동적으로 만드는데 공헌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어휘나 형태적인 측면만큼 괄목한 만한 특징이 쉽게 두드러지지 않는 통사적인 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며 간과한 특징이 물론 있으리라 판단되지만, 현대 스페인어 구어 특히 일상회화체의 한 하위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언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고찰을 위해 본 연구가 선행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VV.AA.(1996), *Clave: Diccionario del español actual.* Madrid: SM.

Alarcos Llorach, E.(1972), "Grupos nominales con /de/ en español", *Studia hispanica in honorem R. Lapesa*, I, Madrid: Gredos, pp.85-91.

Avello Flórez, J. & Muñoz-Carrión, A.(1989), "Cultura juvenil: la comunicación desamparada", en *Comunicación y lenguaje juvenil.* Madrid: Fundamentos, pp.23-54.

Briz Gómez, A.(1996), *Español coloquial: situación y uso.* Madrid: Arco Libros.

Cano Aguilar, R.(1981), *Estructuras sintácticas transitivas en el español actual,* Madrid: Gredos.

Casado Velarde, M. "Léxico e ideología en la lengua juvenil", en *Comunicación y lenguaje juvenil.* Madrid: Fundamentos, pp.167-178.

Fernández Soriano, O.(1993), "Sobre el orden de palabras en español", *Dicenda. Cuadernos de Filología Hispánica*, 11, pp.113-152.

Gili Gaya, S.(1961),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Madrid: Vox.

Gutiérrez Araus, M.ª L.(1985), "Sobre la elisión de preposición ante que relativo", LEA, 7, pp.15-36.

Gutiérrez Ordóñez, S.(1997), *Temas, remas, focos, tópicos y comentarios.* Madrid: Arco.

Halliday, M. A. K.(1978), *Language as social semiotic*, London: Arnold.

Hernanz, M.ª L. & Brucart, J. M.ª (1987), *La sintaxis*, Barcelona: Editorial Crítica.

Herrero, G.(1989), "El coloquio juvenil en los cómics marginales", en *Comunicación y lenguaje juvenil,* Madrid: Fundamentos, pp.179-201.

_____ (1997), "La importancia del concepto de enunciado en la investigación del español coloquial: a propósito de enunciados suspendidos", en Briz, A, y otros(eds.), *Pragmática y gramática del español hablado,* Valencia: Pórtico, pp.109-126.

Lázaro Carreter, F.(1980), "Lenguaje y generaciones", en *Estudios de lingüística,* Barcelona: Crítica, pp.233-251.

León, V.(1980), *Diccionario de argot español y lenguaje popular,* Madrid: Alianza.

Mañas, J. Á.(1994), *Historias del Kronen.* Barcelona: Ed. Destino.

Martín Sánchez, M.(1997), *Diccionario del español coloquial.* Madrid: Tellus.

Martín Zorraquino, M. A.(1979), *Las construcciones pronominales en español,* Madrid: Gredos.

Miranda, J. A.(1998), *Usos coloquiales del español.* Salamanca: Colegio de España.

Moreno Fernández, F.(1998), *Principios de sociolingüística y sociología del*

lenguaje. Barcelona: Ariel.

Narbona, A.(1997), "Sintaxis del español coloquial: algunas cuestiones previas", en Briz, A. *et alli(eds.), Pragmática y gramática del español hablado,* Valencia: Pórtico, pp.157-175.

Ramoncín (1996), *El nuevo tocho cheli: diccionario de jergas.* Madrid: Temas de hoy.

Rodríguez González, F.(1987), "El lenguaje pasota, espejo de una generación", *Revista de Estudios de Juventud,* 26, pp.65-71.

_____ (1989), "Introducción", en *Comunicación y lenguaje juvenil.* Madrid: Fundamentos, pp.9-21.

Sánchez Lobato, J.(1992), "Lengua y sociedad", A*ctas del III Congreso Nacional de ASELE*, pp.59-69.

Sanmartín, J.(1998), *Lenguaje y cultura marginal,* Valencia: Universidad.

Santos Gargallo, I. (2002), "Algunos aspectos léxicos del lenguaje en un sector juvenil: *Historias del Kronen,* de J. A. Mañas", en *Asedio a la enseñanza del español como L2 / LE*, pp.129-150.

Seco, M.(1973), "La lengua coloquial de 『Entre visillos』 de Carmen Martín Gaite", en *El comentario de textos*, 1, Madrid: Castalia. pp.357-375.

Umbral, F.(1983). *Diccionario cheli.* Barcelona: Grijalbo.

Varela, F. & Kubarth, H.(1994), *Diccionario fraseológico del español moderno.* Madrid: Gredos.

Vigara Tauste, A. M^{a}.(1992), *Morfosintaxis del español coloquial.* Madrid: Gredos.

Zimmermann, K.(1996), "Lenguaje juvenil, comunicación entre jóvenes y oralidad", en *El español hablado y la cultura oral en España e*

Hispanoamérica, Frankfurt am Main-Madrid: Vervuert, Iberoamericana, pp.475-514.

Zubizarreta, Mª. L.(1998), *Prosody, Focus, and Word Order*, Cambridge (Mass.): MIT Press.

_____ (1999), "Las funciones informativas: Tema y foco" en I. Bosque y V. Demonte(eds), *Gramá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Vol.3. Madrid: Espasa, pp.4215-4244.

논문투고일자: 2010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자: 2010년 5월 28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6월 22일